

이철우 지사, 'APEC 정상회의 PRS 직접 챙긴다'

(Presidential Suite:속소)

21개국 정상 최고급 숙박시설 전문가·예산 등 전 행정력 투입 전통·현대 조화 세계적 PRS 마련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를 준비하기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PRS는 국빈이 머무는 최고급 숙박시설을 말한다. 이 지사는 외교부 추진단, 경주시, 호텔 대표, 경북 관광공사,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RS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후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지사는 호텔 관계자 간담회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권 스위트룸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예산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세계적인 PRS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호텔류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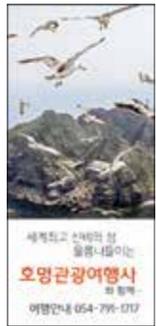
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정상회의 개최 종합계획 수립과 민간 부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지원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 주변에는 반경 3km 안에 숙박시설 103곳(4463실), 10km 이내에는 1330곳(1만 3265실)이 있어 충분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오는 9월 PRS 확충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실시계획 및 착공, 내년 3월까지 정상회의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완공할 방침이다.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 경주 보문단지가 글로벌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호텔 및 리조트 관계자들도 숙박 개보수 및 환경 개선 등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서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에서는 호텔이 부족해 대학교 기숙사를 사용했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등 APEC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를 찾는 정상 등 방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역대 가장 훌륭한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최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도로 및 교통시설 환경 개선, 편의시설 정비 등 기반 시설을 보강해 경북 경주를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 완벽하게 갖춘 시설 환경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상들뿐만 아니라 내년에 경주를 찾는 세계적 기업인들도 깜짝 놀라도록 속소를 비롯한 정상회의의 수용 태세를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2025경주 APEC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26일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모습.



세계적으로 유명한 울릉도·독도는 오름관광여행사의 여행안내 054-799-0717

단체장 일정



오도창 영양군수는 20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영양군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운영 착수보고회」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0일 화원읍 농협달성유통센터에서 열리는 「울지연 습실제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울릉공항 2028년 개항...가두봉 절취공사 난항

총사업비 6651억 원 현재 공정률 51% 수준

경북 울릉군 사동리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 건설 공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개항이 오는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던 울릉공항 건설공사가 2027

년 12월로 연기 고사될 예정이다.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인 울릉공항은 지난 2020년 11월 착공, 총사업비 6651억 원을 들여 2025년 말 완공해 이듬해 상반기 개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5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활주로 공사 과정에서 인근 가두봉 토사를 절취해 해상에 매립하는 공사의 난도 때문에 안전상 문제와 산림청 허가 지연

등으로 공사가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토사 절취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굴착기 작업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2개월간 공사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인근 주민 A 씨는 "산꼭대기에서 굴착기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며 "공사가 어려워 인부들도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홍준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법통"

상수원 안계댐 남조류로 수돗물 흙·곰팡이 냄새 정수장 정수 처리 중 수돗물 끓여 먹는 등 주의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19일 "우리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건국절 논란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 해방 후 영토를 회복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다

시 만들었다고 하면 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홍 시장은 "무슨 이유로 뜬금없이 건국절 논란을 일으켜 국론 분열로 나라가 소란스러우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해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세웠고 주권도 갖췄고, 영토만 일제에 침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그래서 영토 회복을 위해 우리 선열들은 몸바쳐 독립운동했던 게 아니냐"며 "티베트도 망명정부가 있고 팔레스타인도 망명정부가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1948년 8월 15일 유엔에 인정받기 전에도 대한민국은 망명정부로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때 (1919년 4월 11일) 건국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2개월 연속 기준치 ↑

총사업비 6651억 원 현재 공정률 51% 수준

대구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전월(104.0) 대비 8.5p 상승한 112.5을 기록하는 등 6월에 이어 기준치 100을 웃돌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5p 상승한 98.5로 5개월 연속 90선을 유지했으며,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8로 지난해 9월(103.0)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치를 회복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5p 상승한 98.5로 5개월 연속 90선을 유지했으며,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8로 지난해 9월(103.0)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치를 회복했다. 대구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전월(104.0) 대비 8.5p 상승한 112.5을 기록하는 등 6월에 이어 기준치 100을 웃돌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5p 상승한 98.5로 5개월 연속 90선을 유지했으며,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8로 지난해 9월(103.0)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치를 회복했다.

95~100은 '보합 국면 약보합' 상태를 나타낸다. 대구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7월 주택 매도·매수 현황을 보면 매도문의가 전월의 82.7%이며, 매수문의는 3.5%에 불과했다. 전세주택 임대차 동향을 봐도 임대문의는 4.2%에 그쳤지만, 임대 문의는 70.5%에 달했다.

7월 대구의 주택가격 수준은 '낮아졌다'가 38.4%로 '높아졌다'(101%)를 크게 상회했다.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증가했다'가 13.6%로 전월(7.9%) 대비 5.7%p, '다소 감소했음'(22.4%), '매우 감소했음'(9.3%) 등 '감소했다'가 31.7%로 전월(30.5%)보다 1.2%p 각각 상승했다. 황태용 기자

"수돗물서 곰팡이·흙 냄새가..." 포항서 민원 잇달아

상수원 안계댐 남조류로 수돗물 흙·곰팡이 냄새 정수장 정수 처리 중 수돗물 끓여 먹는 등 주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경북 포항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에 흙·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냄새 원인은 폭염에 상수원인 경주 안계댐에 남조류(藍藻類·녹조)가 생겨 유강정수장에서 정화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 다행히 흙·곰팡이 냄새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유강정수장의 조류 유입 차단 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원수인 안계댐의 남조류 발생 농도는 이달 3주차 검사에서 1m당 1848 세포로 나

타났다. 이달 4주차 검사에서 1m당 1000세포 이상일 경우, 조류 경보제 관심 단계로 돌입한다. 안계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유강정수장 남조류 유입 방지를 위해 취수탑 조류 차단막 설치, 취수탑 하층부 선택 취수, 취수탑 주위 폭기(상수와 공기 접촉) 등을 하고 있다. 포항시도 유강정수장 분말 활성탄 투입, 중간염소처리 등 남조류를 방지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수돗물 냄새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흙냄새 등이 인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냄새가 불편한 경우, 수돗물을 끓여 먹는 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창영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2



대구한의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장 선정

대구한의대학교는 전국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장(필기와 실기)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구한의대는 지난12일 세종시 농림수

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지정시험장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받았다. 올해 현재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수도권(5곳), 충청권(2곳), 경상권(3곳)에서 반려동물행

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이 진행되며 전국 10곳 중 유일한 4년제인 대구한의대를 포함해 7개 전문대학,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및 한국에건협회가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됐다. 조미경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숙소 준비... 종합계획 수립

호텔 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견학 숙소 등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인력·장비·시설 등 확보/운영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를 준비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PRS(Presidential Suite) : 국민이 머무는 최고급 숙박시설

이 지사는 외교부 추진단, 경주시, 호텔 대표, 경북 관광공사,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RS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후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지사는 호텔 관계자 간담회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권 스위트룸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예산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세계적인 PRS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호텔 객실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정상회의 개최 종합계획 수립과 민간 부분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①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 ②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지원 ③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상회의의 주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 주변에는 반경 3km 안에 숙박시설 103곳(4,463실), 10km 이내에는 1,330곳(13,265실)이 있어 충분한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올해 9월에 PRS 확충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는 실시계획 및 착공, 내년 3월까지 정상회의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1번지 경주 보문 단지가 글로벌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호텔 및 리조트 관계자들도 숙박 개보수 및 환경 개선 등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APEC에서는 호텔이 부족하여 대학교 기숙사를 사용하였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등 APEC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를 찾는 정상 등방

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역대 가장 훌륭한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최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진입도로 및 교통시설 환경 개선, 편의시설 정비 등 기반 시설을 보강해 경북 경주를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 완벽하게 갖춘 시설 환경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상들뿐만 아니라 내년엔 경주를 찾는 세계적 기업인들도 깜짝 놀라도록 숙소를 비롯한 정상회의의 수용태세를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2025경주 APEC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 사업 본격시행

대체인력 인건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북도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하고, 그중 일·생활 균형 과제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을 과격적으로 제안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없어서 저출생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고용보험 가입 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하게 했으나 이 역시도 폐업을 전제해 정책이었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

자 중 ①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②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천 2백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하게 된다.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경주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20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 매칭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한다.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물가 불경기에 아이 출산과 육아까지 두 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인력 지원으로 동네 상권 주축인 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및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이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일·격정과 육아 격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구 중구, 김광석길 여름 힐링콘서트

야외 음악 공연 누구나 무료로 관람

대구 중구는 24일 오후 6시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8월의 여름밤을 장식할 여름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무더운 일상에 지친 구민을 음악 통해 힐링하기 위해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POP, 대중가요 등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다. 이날 야외 음악 공연

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먼저 팜을 기반으로 클래식, EDM 등 다양한 장르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뮤지션 '원썹밴드'가 아름다운 첼로, 일렉트릭 기타의 선율과 함께 Maroon5의 'Sugar', Queen의 'Don't stop me now', Christopher의 'Bad'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인다.

이어지는 무대는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2인조 혼성 '엘리펀트'가 관객들이 쉽게 따라 부

를 수 있는 '여름안에서', '여름을 떠나요' 등 여름 메들리 공연을 연출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여름을 남길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막바지 더위를 잊고 바쁜 일상에 침표를 찍어갈 수 있는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김광석길을 찾는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풍성한 문화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특별 노선 운영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시투어 누리집 사전예약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관광협회는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전과 연계해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구시투어 특별 노선을 운영한다.

특별 노선은 동대구역을 시작으로 대구간송미술관(대구미술관), 수성못을 거쳐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대구시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1일 2회(동대구역 출발 1회차 9시 10분 / 2회차 14시 10분) 운영된다.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은 신윤복의 '미인도'와 '훈민정음해례본' 등 국보·보물급 문화유산 전시로 일찌감치 흥행을 예고하고 있어, 입장권 예약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별 노선 탑승객은 대구간송미술관 내 현장매표 별도 창구에서 입장권을 20% 할인

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어 한층 여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간송미술관과 함께 대구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싶다면 대구시투어 도심순환코스를 이용하면 된다. 대구간송미술관 특별 노선 탑승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도심순환코스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어 미술관 관람 후 대구시투어 버스를 통해 동성로, 서문시장, 수성못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이번 특별 노선은 대구시투어 누리집(www.daegucitytour.com) 또는 전화(053-627-8900,8906)로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성인 10,000원, 중·고생 8,000원, 경로·어린이 6,000원이다.

배정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이 대중에게 열린 미술관으로 다가가는 첫 단추를 꿰는데 시투어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2024 플래그풋볼 세계대회 출정식

남녀 선수단 및 임원 참가

지난 17일, 대구시 군위군은 군위종합운동장에서 김진열 군위군수, 유호정 대한미식축구협회장, 신경창 사회인연맹회장, 김장림 대한플래그풋볼연맹회장, 플래그풋볼 국가대표팀 남녀 선수단 및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플래그풋볼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플래그풋볼이 2028년 LA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글로벌 대회인 2024 플래그풋볼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출정식을 위해 군위군을 방문한 것이다.

플래그풋볼 세계선수권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과 달리 2024년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리며 남자 부문 32개국, 여자 부문 23개국의 팀이 출전해 경기를 치르게 될 예정이다.

이날 출정식은 개회사, 내빈소개, 축사, 국가대표팀 선수단 소개 및 임명장 수여, 출정사 등으로 식순이 진행되었고, 유호정 대한미식축구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플래그풋볼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과 더불어 출정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해주신 군위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내 미식축구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가대표로서의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며, 남자와 감독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미식축구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한미식축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날 말에 펼쳐지는 대회에서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군위군은 현재 미식축구 선수단의 훈련장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1부리그 격인 제63회 전국대학 선수권대회 결승전인 '타이거볼'과 제28회 사회인리그 미식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인 '광개토볼'을 군위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특히 사회인리그 미식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은 군위종합운동장이 준공된 이래 군위군에서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개최되었다.

이는 미식축구가 비인기 종목이고 사실상 볼모지에 가까운 현실 속에서 군위군은 미식축구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군위군이 국내 미식축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플래그풋볼은 미식축구에서 파생됐으며 공을 가진 선수가 허리에 매달린 깃발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상대 팀 진영에 공을 들고 들어가 점수를 따내는 게임이다. 몸싸움이 심한 미식축구와 달리 최대한 몸싸움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미식축구보다 세계적으로 더 호평받고 있다. 박재성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0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	053-267-5000	광고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	053-267-0900	시회부	053-253-0080	기행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입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9,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천읍, 광복절 기념 읍민축구대회 개최

경주시 건천읍에서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건천운동장에서 읍민 축구대회를 건천읍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55회를 맞이한 읍민 축구대회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을 추모하며, 읍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박승지 도의원, 김동해·김소현 시의원, 남삼숙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각 기관 및 자생단체장, 회원 등 200여

명의 건천읍민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축구대회에 앞서 건천읍 출신 독립유공자 '일천 정수기(一川 鄭守基, 1896-1936)' 선생의 추모식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추모공연에서 건천운동장까지 광복절 만세도보행진을 재현하며 선생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 환경 감시 행정력 집중

호국로 2595 일원 본격 운영 시설 구축 사업비 5억원 투입 오염 배출원 예측 및 추적 활동

경주시가 환경 감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주시는 안강읍 호국로 2595 일원에 연면적 168㎡ 규모의 '환경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경주시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악취 등 환경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성능 장비를 통해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설 구축에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됐다. 환경통합관제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경주시는 전산시스템과 환경측정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환경관제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담당팀별로 나눠 관리되던 악취 측정 장비 20개, 환경 감시 카메라 4개, 도시 대기 측정망 4개소, 환경 전광판 3개소를 통합 관리해 정확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를 통해 통합된 환경정보와 실시간 데이터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의 사전 예방과 개선 방향 제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신속한 오염 배출원 예측 및 추적으로 환경관련 민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야간과 주말 등 취약 시간대 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24시간 환경민원대응반'도 운영하고 있어 환경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주요 악취 배출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악취 측정 장비 추가 도입

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계기로 실시간 환경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환경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관리와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심상권에서 경주페이 사용하면 5% 추가 할인

행안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등 확보

경주 중심상권 내 경주페이 가맹점에서 지난 16일부터 경주페이 사용 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사업 공모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한 결과물이다. 이용자들은 중심상권 내 북점도, 봉황로, 중심상가 등 도심권 경주페이 가맹점에서 올 연말까지 기본 7-10%에 이번 5% 추가 혜택을 더해

총 12-15%의 캐시백 혜택을 누리게 됐다. 현재 5% 할인혜택 경주페이 가맹점은 291곳이 모집 완료됐고, 앞으로도 가맹점을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에서도 지난 7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5%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 사용처는 건강나라, 왕립탕을 제외한 경주페이 가맹점 30곳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참여된 상권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 및 관광객 유입 증가로 중심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QR코드로 홍보 진행

경주시는 지난 16-17일 봉황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경주시가 시행 중인 138개의 출생부터 청년자립까지 생애주기별 보기 쉽

게 정리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QR코드 형태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청년지원정책과 결혼·출산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결혼친화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해 '경주시저출생대책시

민운동본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캠페인도 진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인구의 활성화가 저출생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까지 을지연습... 드론공습 대응훈련

시장 주재 최초상황 보고 회의 현안 과제토의와 실제 훈련 등



경주시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4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연계한 이번 훈련은 전 공무원과 경주 10여 개 기관, 단체 등 100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19일 오전 주낙영 경주시장 주재 최초상황 보고 회의를 시작으로 국지도발 대응 위기관리 연습, 전시 전환 절차 숙달을 위한 상황 조치 연습, 전시 현안 과제토의와 실제 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지역 대표 훈련으로는 20일 오후 3시 다중이용시설인 경주예술의전당이 적 드론 공습에 피격을 가정해 대응훈련을 진행한다. 이어 21일에는 황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공습 대비 민방공 대피 훈련이 진행된다. 또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국민참여 민방위훈

련과 이번 을지훈련을 총평하는 강평 보고회가 개최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16일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3/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시 청사 4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통합방위회의는 을지연습 준비계획에 대한 보고와 경주보문관광단지 호텔에 적 테러 공격을 가정한 군·경소방 등 대응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만큼 철저한 테러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잘 구축해, 실제 비상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이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2회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 참가자 모집

유니세프 아동친화영역 6 분야

경주시가 제2회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참가자를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경주를 위해 아동 친화적 정책을 발굴하고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주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영역 6가지 분야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을 선정했다. 참가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10세~18세 미만, 대학생 제외) 또는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이며, 개인 또는 2-6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접수 기간 내 제안 주제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전자우편(haebonpolicy@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5개 팀을 선정 후 10월 3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본선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최종 선정된 정책을 부서별 검토 과정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자 제2회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을 개최하게 됐다"라며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정책 참여로 아동의 삶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리단길 빈점포 창업지원사업 추진

예비 창업자 16명(팀) 중 평가 먹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경주시가 금리단길 빈점포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창업자 12명(팀)에게는 건물 내외부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점포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 별도)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경주시 거주자 및 전업 예정자로 금리단길 내에서 빈점포를 활용해 일반음식점 업종전환 희망자 또는 신규창업자, 재창업자라면 가능하다. 선발은 먼저 예비 창업자 16명(팀)을 1차 선정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과 평가를 거쳐 최종 12명(팀)을 선정한다. 접수는 이메일(gyeongju_re@naver.com)로 이뤄진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중부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나눔 활동

경주시 중부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회장 박상용, 장정희)는 8월 14일(수) 집이 넓고 오래되어 생활환경이 취약한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은 중부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들이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도 유래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 집 청소 및 물품 정리정돈 등 주거환경 개선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지난 8월 1일(목)에는 안강읍 옥산서원 주변에서 피서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등 중부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관광 및 도로가 환경정비, 지역아동센터 이미용 봉사 등 성실하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중부동 만들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불국동 새마을회 집고쳐주기 프로젝트 진행

불국동 새마을회(회장 안유근, 최인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한달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김OO, 전현동 소재)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경주시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불국동 새마을회가 제안하고, 경주시종합지원센터가 후원했다. 함께 하는 봉사단,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봉사단, 경주지역자활센터 등 40여 명의 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집 고쳐주기 프로젝트는 활용 가능한 소정의 예산과 물품을 지원해 통해 진행되었으며, 봉사자들은 각자의 재능을 기부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안유근 불국동 새마을회(회장)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포항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영덕군, 비자사업 설명회

영덕군가족센터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 수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4일 관내 제조업 분야 및 식품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덕군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2차로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덕군가족센터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함께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사업체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취지, 신청조건과 방법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유학생이거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이상 되는 근로자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조건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과 배우자 취업까지 허용되는 특례다.



포항, 일자리연계형 공모 선정

포항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운동시설 등 지원시설을 결합한 공공주택으로, 시는 이번 공모로 국비와 주택건설기금 등 약 2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장성동 주거지역 내 영일산단과 인접한 위치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세대와 청년 커뮤니티시설, 편의시설을 통합해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영일산 1-3산단 및 준공을 앞두고 있는 4산단의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또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활용품 활용 퍼포먼스 기대하세요~

영덕편박스레이스 참가팀 추가 모집 상금 포함 총 지원금 3천만원 규모 국내 유일 무동력자동차 경주대회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 영덕군 영덕읍내에서 진행되는 <2024영덕편박스레이스>에 참가할 팀을 8월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국내 최초 재활용 무동력 자동차 경주대회인 <2024영덕편박스레이스>는 상금 포함 총 지원금 3,000만원 규모의 대회로 영덕읍사이클링아트페스타의 메인 프로그램이다.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가 담긴 무동력 자동차로 신나게 레이스를 펼치는 이 대회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작년 처음 진행됐다.

올해 2회차 행사에는 대회장에 대형 LED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확충하여 관객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경기 트랙 외에도 전시 공간, 관객참여 프로그램, 먹거리 부스 등을 강화해 영덕을 대표하는 환경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게 할 예정이다.

지난 8월 6일 마감된 1차 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12팀이 지원해 최종 11팀이 선정됐고 이번 2차 모집에서 총 9팀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2024영덕편박스레이스> 참가팀 추가 모집 기간은 8월 27일(화)까지이며,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sw@ydc.org)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민이며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교사 또는 보호자의 팀 참여가 필수



이다. 총 상금은 1,000만원으로 종합 1위 300만원, 2위 200만원, 3위 100만원이며 본상 외에 베스트레이스, 베스트퍼포먼스, 베스트디자인, 심사위원특별상 등에도 각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특히 상금과는 별도로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출전한 모든 팀

에게 100만원의 제작지원금도 지급된다. 예선을 거쳐 선정된 총 20팀은 9월 7일 현장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편박스레이스 현장 답사와 차량 제작 가이드, 퍼포먼스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게 된다. 차량 제작 기간인 9-10월에는 사업 담당자가 팀별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무동력 자동차 제작 과정을 촬영하고 인터

뷰를 담아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편박스레이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은 영덕읍사이클링아트페스타 폐막과 함께 진행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2023년 첫 대회에선 서류심사를 통해 총 16팀이 예선을 통과했고 차량 제작까지 완료한 12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여팀은 크게 가족팀과 학생팀으로 나뉘었는데 학생팀의 자동차가 수준이 높아 관객과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작년 대회의 종합 우승팀은 포항제철재학생으로 구성된 '농부들'팀으로 3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2위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가족팀 '하하네'가 수상했고, 역시 영덕 주민인 '뚝딱이네'가 3위와 베스트 퍼포먼스 2개 부문을 수상해 각각 200만원씩의 상금을 획득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결승점을 통과한 MG(Master Grade)팀이 베스트레이스, 레이스를 포기하고 디자인과 퍼포먼스에 주력한 Noon팀이 베스트디자인상을 수상하며 각각 100만원의 상금을 수령했다.

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 담당자는 "올해도 얼마나 기발하고 독특한 작품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크다."며 "재활용품을 활용한 차량 제작뿐 아니라 퍼포먼스와 코스튬 등 다양한 요소를 신경 써서 준비한다면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팀을 전했다.

한편 영덕편박스레이스를 포함한 2024영덕읍사이클링아트페스타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영덕군 덕곡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도화/제조 스케일업 지원...첨단신소재 거점도시 도약

울진군선관위, 남울진농업협동조합장선거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우수기업 3개 사 선정 특구 내 기업 수 243여개

포항시는 지난 19일 포항강소특구 내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성과조사 결과' ▲투자유치분야(썬플라리스스리디) ▲일자리창출분야(썬레시저스) ▲매출액분야(썬리스트벤처)를 각 분야의 성과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유치 우수기업으로 선발된 썬플라리스스리디는 AI 자율로봇을 전문 제조해 유럽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등 올해 150억 원 규모 투자유치

에 성공하며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썬레시저스는 광 트랜시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지난 2022년 '경북 스타트업 혁신대상'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창업 이후 14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올해 상반기 11명을 신규고용하며 기술개발과 인력 채용 및 제조 설비를 늘려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누적 매출액 227억 원을 달성해 매출액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썬리스트벤처는 포항 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우수 실용화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문회사이며 포항강소특구의 제2호 연구소기업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8월 전국 최초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출범 5년 동안 포항공과대

학교(POSTECH),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기술핵심기관과 연구기관의 공공기술사업화·창업-성장-제조 단계의 포항강소특구형 육성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 결과 특구 내 기업 수가 2019년 말 120개 사에서 2023년 말 243개 사로 1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강소특구 연차 평가에서는 2022년 최우수 등급, 2023년 우수 등급 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강소특구 육성사업(1단계)이 올해 5년 차로 종료된다"며 "특구 내 기업 성장과 특화 분야의 고도화, 제조 스케일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주도형 첨단신소재 거점도시로 도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진군, 후포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입주자 모집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 후포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울진군에 따르면 1층은 활어 12개소, 선어 11개소, 건어물 4개소, 가공품 3개소, 2층은 음식점 3개

소, 카페 1개소로 가점제(30%)와 주점제(70%)를 병행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모집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내에 있는 울진군민이어야 한다.

상가 규모, 제출서류, 신청 방법 등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고사·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 서류를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남울진민원센터(문의: 789-6872)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 청년과 상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포항시 대이동 노인일자리아사업 안전 점검

노인일자리아사업 현장 방문 어르신 건강 안전 점검 실시

포항시 대이동은 19일 노인일자리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기폭적인 폭염이 지속되자 2주간 활동중단 기간을 가진 후 활동을 재개하면서 실외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시했다.

대이동은 생수 및 안전용품 등 폭염 대비 물

품을 전달과 함께 올바른 복장 착용과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등의 내용을 강조하며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박영희 대이동장은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어르신들이 여름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 '행복, 감사 찾기 스토리텔링' 행사

노년층 소통 통해 정서적 고립 해소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노년층의 긍정적 소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지난 16일 후포면 삼울리 마을회관에서 '행복, 감사 찾기 스토리텔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노년층의 긍정적 소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심상고향별곡 기용악재의 특강(주제: 당신이 살아온 삶이 최고의 감사이자, 기적입니다)

및 김민재 연주자의 감미로운 색소폰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부스를 운영해 정신건강검진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노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예방 및 서비스 접근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외로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경산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경산시는 18일 경산이주노동자 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경산시 보건소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협력해 진행됐으며, 경제적 부담과 생업에 종사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건강 상태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분기까지는 오후 2시에 검진을 진행했으나,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이번 3분기부터는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검진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혈당, 간 기능, 고지혈증, 신장 기능, 빈혈, 에이즈, 매독 등 29종의 병리 검사와 일반 진료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다국어로 번역된 건강정보 책자와 홍보물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진에 참여한 H씨(49세, 파키스탄)는 "병원에 가면 의사소통 문제와 진료비 부담이 컸는데, 주말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검진이 언어 장벽과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경산시는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가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산 서부2동 강사 차담회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는 16일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서부2동 학습관 강사 및 주민 자치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서부2동 학습관 강사 차담회를 가졌다.

안근상 서부2동장은 "수강생을 위한 수준 높은 강의 준비와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활기찬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서부2동 학습관은 지난 2023년 상·하반기 수료 발표회를 개최해 수강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명품 서부2동'에 맞는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는 등 앞서가는 평생학습을 펼쳐 장년층 선산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타 지역에서 서부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파를 위한 자문위원이 되고 있다.

영천시,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조성에 박차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공사 진행

영천시가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조성을 통한 아동 돌봄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완산동 924-31번지 일대의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해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돌봄센터에는 △1층 주민운영카페, 전시공간 △2층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 도서관 △3층 영천시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4층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 아동 등에게 방과 후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기존의 중앙·동부(2개소)·금호에 이어 5호점을 개관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직접 '뽕앗이' 형태로 자녀를 돌보는 돌봄 공동체 공간으로 지역의 육아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또한,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는 맞벌이 등으로 아이가 아플 때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모를 위해 병원 진료 동행이나 별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간호사, 돌봄 교사 등 전문인력 이상 주하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유



아~초등학생 연령대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서부동에 있는 가족센터가 자리를 옮기고, 장난감 도서관 2호점까지 개관하면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는 명실상부한 영천

의 공공육아·돌봄 체계를 이끄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지역 내 돌봄기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발맞춘 맞춤형 돌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청도서 세계정신올림픽 준비 연합학술대회 개최

화랑정신과 새마을정신 관련 다뤄

청도군은 23~24일 양일간 청도신화랑풍류마을에서 세계정신올림픽 실현과 심신 단련을 목표로 하는 "제1회 세계정신 올림픽(World Mental Olympics)" 개최를 위한 연합학술대회가 열리고 밝혔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만희 청도영천 국회의원, 전종용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내외 주요 내빈과 함께 △대한지방자치학회, △동북아 관광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ESG학회, △골든에이지포럼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다수의 학회가 참여한다.

연합학술대회 준비위원회는 조직위원장에 조덕호 대구대 명예교수, 집행위원장은 박상호 동국대 객원교수, 실무위원장은 권성문 대구대 교수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는 송진섭 새마을운동연구원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덕호 연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 내빈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미국, 일본, 아프리카 등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개회식 이후, 소진광 (전)새마을중앙회 회장



의 '밀로부터의 정신혁명: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의 'ESG 시대, 한국 정신 혁명의 근원'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학술대회 1일차(23일) 오전 세션에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임형백 성결대 교수) △ESG 정신과 새마을운동(장동희 새마을운동연구원 대표이사) △정신문화의 기조이론으로서 정신철학에 관한 단상(이해영 영남대 명예교수) △화랑 오계와 법제 명성의 계승관(학감원범스님 청도 운문사) △우리 지류의 우수성과 보존문화 발전방향(안병목 배점장) 등을 발표하며, 오후 세션에는 △정신올림픽 성공을 통한 청도군 마을의 세계화를 꿈꾼다(기하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라는 주제의 발표가 이어진다.

2일차(24일) 세미나에서는 △골든에이지의 삶의 질(김미령 골든에이지포럼 대표) △인공지능의 한계와 기술적 사유(박성우 우송대교수) △AI와 인간: 포스트 휴먼의 정체성(박근서 대구가톨릭대 교수) △물질에 이어 정신문명의 중심(종원명 前브루나이 대사) △청도군 새마을 수요발굴과 대응방안(송진섭 대구대 교수)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의 미래(최병재 대구대 교수)의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 혁명'을 주제로 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행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학회가 참여하지만 특히, 다른 종교와 사상이 융합된 유·불·선기 융통 섹션은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된 바 없는 오직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의 정신과 사상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연합학술대회에서 도출되는 학문적 이해와 논리를 바탕으로 대구대 새마을운동연구원(센터소장 송진섭)에서는 청도군의 정신문화인 화랑정신과 새마을정신을 체계화하고 재정립시켜 정신혁명의 세계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의 이론적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성주 용암면 농지위원회 위촉식

성주군 용암면은 지난 16일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제2회 용암면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으로 2022년 7월 제1회 농지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위원회 역할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 결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함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주만호 용암면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 개개인이 엄격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도재훈 기자

고령 제2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참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등 이벤트 20개 품목 답례품 전시 등 진행

고령군은 16~18일까지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고향사랑 기부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제2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돕고, 이를 통해 지역 재정확충의 계기로 만들고자 기획된 행사로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정책박람회이다.

고령군은 박람회 기간 홍보 부스 운영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담 및 고향음미, 전통 장류, 한우, 방향제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20개 품목 답례품 전시와 랜덤팍스 이벤트 등을 펼쳐며 활기를 더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이번 제2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를 통해 방문객들에



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선순환 효과가 잘 전달됐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령군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인다.

배영백 기자

청도군, 2024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 개최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 참석 전시수행기구 창설 등 운용훈련

청도군은 19일 군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초상황보고회에는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을지연습 주요 연습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인 훈련 수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을지훈련은 8월 19일(월)부터 8월 22일(목)까지 실시되는데, 특히 사이버테러와 드론을 이용한 공격 등 신종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실시된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전시수행기구 창설 및 운용훈련 ▲전시주요 현안과제 토의 및 도상연습 ▲실제 훈련 및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포함된다.

청도군은 지난 8월 12일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14일(수)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훈련」 실시 및 「2024년 3분기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며 성공적인 을지연습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그리고, 8월 21일(수)에 실시될 ▲실제 훈련에는 민·관·군·경·소방 등이 함께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정부연습을 실시하며, 실천 같은 연습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기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연습 마지막 날인 8월 22일(목)에는 ▲을지연습 연계 공습 상황 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김하수청도군수는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안보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고, 실천과 같은 연습이 되도록 준비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지역과 국가의 안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칠곡



노인 돌봄 실무자 수료식

김천시평생교육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지난 8월 14일 평생교육원 3강의실에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직업교육훈련 『노인 돌봄 실무자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교육과정 중 조기 취업자 5명, 미수료자 1명을 제외한 13명의 수강생과 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개근상, 공모상 수여와 소감 발표 및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개월에 걸쳐 총 122시간 동안 진행됐다.

19명의 교육생이 노인학대 예방, 응급처치 교육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그중 17명의 수료생이 인지행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수료생들은 시니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노인 돌봄 실무자로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교육 수료생은 소감을 통해 "이번 교육으로 어르신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실습 체험을 해보며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과 습득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김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4) 430-1179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상주 이·통장 연합 체육대회

상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16일 상주 실내체육관 신관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24개 읍면동 이통장과 그 가족들 등 1,200명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상주시 이·통장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모범 이통장 시상, 결의문 낭독, 대구 군부대 유치 퍼포먼스,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상주시민의 열망이자 상주시 대변역의 기회인 대구 군부대 유치를 위해 이·통장 등 1200여 명이 한뜻을 모아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경호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를 영원합니다 경찰과 문경시민은 하나입니다



오감만족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성료

황토 흙길 코스 왕복 13km 걷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홍보 병행

2006년을 시작으로 19회째를 맞이한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이 8월 17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후원하고 대구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도 다채롭고 새로운 행사로 문경새재도립공원 일대를 뜨겁게 달궜다.

구미시 농협중앙회 기부제 협약

구미시는 19일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와 고향 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농상생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금 사업 발굴, 경쟁력 있는 지역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 및 공급, 기부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 창구 수납 및 현장 수납 적극 협력 등을 담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미시와 농협이 상호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지방을 다시 살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류승엽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장은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 농·축산물 분야의 답례품 발굴과 제도 홍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송명주 기자

김천 도서관 여름 특강 성료

김천시립도서관은 여름 방학을 맞아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하며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립도서관 본관과 읍곡도서관에서 운영된 이번 여름 특강은 6세 이상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의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창의 그림책 놀이, 무무 인형 만들기 등과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건강양차, 샐러드 볼 도자기 공예 등 총 21개 강좌를 진행했다.

여름 특강에 자녀와 함께 참여한 한 부모님은 "방학이지만 올해 유난히 날씨가 더워 야외 활동도 못하고 아이와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도서관 강좌를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 자주 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강좌를 많이 운영하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도서관에서는 방학 기간에 여름 특강 외에도 학생들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팝아트 인형극장, 그림책 상상놀이, 우리 동네 진로 탐험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순영 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안한 문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월에도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강좌가 계획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이날 행사장에서는 문경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열기로 뜨거웠다. 경찰청에서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비해 현재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 전국 단위로 공모하였다.

문경시를 비롯한 전국 40여 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10월 현장 실사에 이어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범시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유치 염원 퍼포먼스

에 많은 방문객들이 함께하였으며,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찰과 문경시 상호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였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경찰은 문경시민을 지키고 문경시민은 경찰을 지킨다"며, "문경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꼭 유치하여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찰과 국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한가운데 연꽃 만발

매년 7~8월 3만여평 수변 장관 둘레길 걸으며 자연 생태 체험

상주시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에 흥연 연꽃이 만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으며, 중덕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다.

평화 위해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앨범 보낸 트로트 가수

KBS 근로자 가요제 대상 경북 칠곡 김채연 씨 헌정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 국민들이 'K-트로트'를 부르며 행복한 일상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러시아 본토까지 전장이 확장되는 가운데 2년 동안 전쟁을 이어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위해 데뷔 앨범을 보낸 신인 트로트 가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6·25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군 출신으로, 지난달 앨범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가수 김채연(본명 김미순·53) 씨다.

그는 서울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사관에 "포성이 멈추고 국민들이 한국의 전통가요를 들으며 어깨춤을 추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

는 내용이 담긴 영어 메모와 함께 각각 앨범 100장을 보냈다.

자신의 곡처럼 밝고 경쾌한 리듬이 이어지는 K-트로트가 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음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전쟁 복구 비용으로 기부할 의사도 내비쳤다.

김 씨는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가수의 꿈을 접지 않고 활동을 이어오다 2022년 KBS 전국근로자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곡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평행선, 남이, 미운 사랑 등의 작곡자이자, 'KBS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 알려진 송광호 씨가 작사와 작곡을 맡았다.

한국 전통 트로트의 맥을 계승해 경쾌한 리듬에

객들이 찾아와 상주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만개한 흥연 연꽃과 더불어 야생화 단지, 수목단지 등 조성으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어 자연과 환경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원이다"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힐링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사가 단순하고 반복적이라 남녀노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씨는 타이틀곡 '남과 여'의 가사를 소개하며 평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노랫말처럼 남자는 연애, 여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너무 다른 만남이지만 결국은 서로 사랑하며 공존한다"라며 "남자와 여자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은 서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음악은 총보다 강하다. 한국인민의 흥과 리듬이 있는 K-트로트를 통해 평화와 반전 메시지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라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싶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씨의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은 멜론, 네이버, 카카오, 벅스, 유튜브 뮤직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거하는 방식 등 효과적인 방법들을 활용해 이뤄진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가시박과 환삼덩굴 같은 교란 식물들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제거하더라도 금방 다시 자라나는 특성이 있다. 10월 말까지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지속해서 실시해 토종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김천시,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실시

전담 인력 약 10여 명을 투입 종자 번식 전 꽃대 제거 작업

김천시는 오는 10월까지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한다.

가시박과 환삼덩굴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 식물로, 넓은 환경내성범위와 강한 번식력을 지닌 특성이 있다. 인근의 수목과 농작물 등을 감고 올라가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고

고사시켜 국내 토종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는 주범이다.

김천시는 매년 이러한 생태계 교란 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퇴치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작업 구간은 남면 초곡리 일원과 농소면 입석리부터 연명리까지의 구간으로, 7월부터 전담 인력 약 10여 명을 투입해 교란 식물 퇴치에 힘쓰고 있다.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작업은 교란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지역을 월 3회 이상 반복해 실시하며 뿌리째 뽑거나 종자 번식 전 꽃대를 제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의성



예천군 상생발전 음악회 개최

예천군은 지난 17일 경북도청 신도시 패밀리파크 잔디광장에서 '2024 경북도청신도시 한여름밤 패밀리 MUSIC ON'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예천군·안동시가 공동주최하고 예천군 번영회, 안동상공회의소가 주관해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두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5번째인 이번 음악회는 처음으로 패밀리파크 잔디광장 야외에서 진행됐으며, 인근 주민들은 가족, 연인, 지인과 함께 돛자리에 앉아 공연을 즐기고 정답을 나누면서 한여름밤의 매력을 만끽했다.

이날 행사는 이경민 MC의 진행으로 김경호 밴드, 보컬리스트 사필성, 색소포니스트 신유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장을 찾은 김학동 예천군수는 "늦여름 무더위에 지친 지역주민들에 위로와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예천군총축제, 활채현 등 다양한 축제와 폭넓은 문화행사를 준비해 더욱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봉화 베트남 계절근로자 입국

봉화군은 지난 16일 베트남 하남성 계절근로자 56명이 입국해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이들을 위한 환영식 개최와 더불어 근로자 사전 교육, 급여통장 개설 및 농가 주와의 상견례 등이 이뤄졌다.

지난 1일에도 하남성에서 39명이 입국한 바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상반기 입국 후 근로를 마치고 출국한 뒤, 재입국추진제도를 통해 이번에 재입국해 봉화 들녘에서 3개월간 근로한다.

특히 금년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계절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하남성 노동사회보훈부 부국장 등이 근로자들을 인솔해 입국했으며, 며칠간 봉화군에 머무르며 근로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레티투항(LE THI THU HANG) 부국장도 환영식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봉화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근로자 역시 한명 한명이 베트남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봉화군 농가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며 근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상기 기자

안동 백종원 대표 (주)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

차별화된 협력 사업 기대 맞춤형 행·재정적 지원 제안

안동시(시장 권기창)와 ㈜더본코리아는 19일 '민관협력 지역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더본코리아(이하(주)더본)는 예산군과 협업 사례인 메뉴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로 최근 민관협력 분야에서 명성이자 자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모범사례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 권기창 시장과 백종원 대표는 안동의 특화 자원에(주)더본의 전문적인 성공 노하우 연계를 통한 지방소멸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는 ①지역특산품을 연계한 지속성을 가진 외식산업 활성화, ②먹거리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생활)인구 유입, ③탈춤페스티벌 먹거리 분야의 성공적인 운영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우선, 시(市)는 오는 9월 개최될 2024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첫 협업 무대로 설정하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메뉴 개발, △비교우위를 갖춘 콘텐트 발굴, △차별화된 홍보전략 등을 통해 안동 브랜드 제고와 지역축제의 성공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市)는 단계적으로 향후 경북 내륙권과 대구권을 겨냥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안동본원 유치에 위하여 맞춤형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외식산업과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된 인력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도심 상권의 활력을 위한 선순환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의 관련 공모사업 응모 및 자체사업 제안 등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우선 이번 첫 협업 무대인 2024년 탈춤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 몸심양면으로 돕겠다."라며, "향후 축제 성공 프로젝트 이후 침체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협업 분야 발굴을 추진해보겠다. 안동시에서는 더본코리아 추진팀과 긴밀한 협업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와 협업을 위해 방문해 주신 백종원 대표님께 정

말 감사드립니다."라며 "오늘 협약이 안동시 브랜드의 성공적 대도약을 위한 중대하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안동시와 더본코리아가 지방소멸 극복을 넘어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민관협력 성장동력 창출의 모범 사례로 전국에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안동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영주시, 영주댐 수생태정원 조성 추진

8월 2주차 환자 수 높은 수준

안동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8월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됐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8월 2주차 입원환자 수(1,357명, 잠정)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시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 시설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표본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송명주 기자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이 중요하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 사용 시 2시간에 한번 씩 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추가 전파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 환기 부족과 여름철 휴가기간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실내환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명주 기자

생태습지 친환경 탐방로 계획 지속 가능한 영주댐 개발 박차

영주시는 19일 오후 3시 시청 직소민원실에서 '영주댐 수생태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남서 영주시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착수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국가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표로, 이번 용역에서 △영주댐 수생태정원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정원 조성 필요성 정량 5종 이상에 부합하는 테마정원과 기타 필요한 시설계획 구상 △정원 대상지에 대한 포지셔닝 전

락 도출 △정원 조성에 대한 미래비전 및 목표 제시 등을 수행한다. 영주댐 수생태정원 조성사업은 영주댐 관광지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산면 석포리, 내림리 일대 약 113만㎡의 부지에 생태습지 및 친환경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영주댐 개발을 통해 영주시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차별화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영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정원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문정 야외물놀이장 성황리 폐장'

운영 기간 중 총 7천여명 찾아

지난 7월 27일 개장한 영주시 문정 야외물놀이장이 2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8월 18일 운영을 마무리했다.

영주시는 '문정 야외물놀이장' 운영 기간 중 7천여명의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영주 문정 야외물놀이장은 매일 10시~17시 30

분까지 운영됐으며,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 물놀이장 내 안전관리 및 질서확립에 기여했다.

물놀이장은 1천㎡ 규모의 대형 수영조를 비롯해 에어슬라이드, 유아풀장, 바닥분수, 공기주입기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물골레트, 탈의·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한, 문정폭포를 활용한 간이수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물놀이하는 느낌을 줬다.

예천군 유치원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새벗유치원 유아 120명 대상

예천군 새벗유치원은 14일에 유아 120명(6학급)을 대상으로 3층 체육실에서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불소도포는 치아 전체에 불소를 도포하여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어 충치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에 잘 견디고 치아 표면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천군 보건소에서는 어린이(15세 이하)의 치아우식(충치) 예방에 약 40% 효과가 있는 불소를 도포하여 충치를 예방하고자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자 한다.

불소도포 전 주의사항으로는 불소도포한 날에는 하루 동안 양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소도포 전 양치를 해야하며 불소도포 후 1시간 동안은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어슬라이드는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있어 특이나 인기 많았다.

아울러, 맨스공원, ox 퀴즈를 통한 상품추첨 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더위 속 진행된 이번 물놀이장은 도심 속 가족 단위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여 방문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여름철 추억을 선사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짬뽕 같은 폭염 속에서도 물놀이장 운영에 적극 힘써주신 영주시체육회 직원, 안전요원 등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시원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4세 유아 000는 "친구가 제 차이를 보면서 '반짝 반짝해졌다'고 말해주었어요. 할 때는 무서웠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무섭지 않았어요. 해보니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었어요."라고 하였다.

우수원장은 "이번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갖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유아기 구강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의성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의성군 비안면센터가 제11회 2024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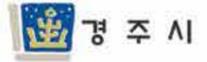
농식품부에 따르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하여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우수마을과 우수활동가를 발굴하고, 다른 농촌마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비안면센터는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비안면 농촌심지활성화사업으로 양성된 한지공예 전문가들이 의성군 18개 읍면에 출강 및 배후마을 서비스를 전달하여 지역사회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안면센터를 모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7월 15일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제 9월 진행되는 최종평가를 앞두고 본선에 진출한 팀을 대상으로 '대국민 참여 사진 문자 투표'를 실시 중이며 투표 결과로 가점이 부여된다.

투표는 25일 18시까지 진행되며 (1800-4856)으로 '9' 또는 '9번'이라고 작성 후 문자를 보내면 비안면센터를 응원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2025 APEC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지금 경주는 APEC 중
우리가 함께 한 경주
세계로 향하는 경주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GYEONGJU

APEC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의 기구입니다.

21개국 정상 및 대표단, 기업인 등 6,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